

강진 인풍,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정

2020년부터 5년간 6억5천만 원 사업비 지원 강력한 농업환경 개선의지 높이 평가받아



강진군 군동면 안풍마을이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으로 2019년도부터 전국 4개 시군에서 최초로 실시되고 있다. 이제 겨우 1년이 경과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토양·용수 등 농업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농촌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해 환경운동 및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핵심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9월 3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모사업에 당선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

했다. 해당 공모사업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1차로 도 자체심사를 통과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평가를 거친 후에 선정된다. 전남에서는 강진을 포함한 4개 지역(강진, 순천, 담양, 장성)이 신청했으며 이번 공모 선정에는 1차 선정지인 함평에 이어 강진이 선정됐다. 강진을 포함 전국 200여 개의 자치단체 중 20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군동면 안풍마을은 친환경 실천 기반이 조성돼 있으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지가 높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풍마을에서 추진하게 될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은 5개년 사업으로 2020년엔 주민대상 교육·컨설팅과 농업환경 실태조사와 마을 환경 진단 후 2021년부터 연평균 1억3천만 원 정도의 사업 관리·운영비 및 활동 이행비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는 농업환경보전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활동이행비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역 농업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개인활동은 총 4가지 분야이다. 토양분야에서는 농약사용 저감과 적정 양분 투입을, 용수에서는 농업용수 수질 개선을, 대기에서는 축산 악취 저감을, 생태에선 재래종, 토종 품종 재배 등을 추진한다. 4개 분야의 9개 단위과제가 19개 세부활동으로 정해져 있다.

군동면 안풍마을 송현미 이장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안풍마을 지역의 생태계의 보전, 농촌경관 등이 한층 더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안풍마을 공모사업을 단순히 마을 환경개선에 치중하기보다는 친환경 실천기반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농업환경보전 분야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향후 다른 마을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한국생활개선무안연합, 한마음대회 성료



한 실적을 회장님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에서는 우수회원 표창, 무안군수(김산)의 축하말씀, 한국생활개선무안연합회 회장(문영순) 대회사, 진행됐으며 식후행사는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필요한 장석근 강사의 사상체질 강의와 농업·농촌 관련 선진기관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이 있었다.

무안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에 감사하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촌의 지킴이로서 농촌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행복한 농촌의 지도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한국생활개선무안연합회는 현재 10개회 39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으로 아름다운 농촌을 기꾸는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2020년도 예산 편성,역대 최대

완도군은 2020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91억 원이 증가한 총 5,20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여 완도군의회에 상정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935억 원이 증가한 5,05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43억 원이 감소한 15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7년 3,421억 원, 2018년 3,704억 원, 2019년 4,510억 원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군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은 군역점 시책인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우선 반영하고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농·수·축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SOC 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세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업이 전체의 25.5%인 1,32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1,095억 원 (21.0%), △환경 444억 원 (8.5%),

△문화 및 관광 419억 원 (8.1%), △국토 및 지역개발 286억 원 (5.5%) △일반 공공행정 279억 원 (5.4%), 중소기업 및 에너지 261억 (5.0%) 순으로 편성됐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해양치유센터 건립(124억 원), 해양치유블루존 조성(55억 원) 등에 188억 원, 군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224억 원), 체육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 SOC 사업(179억 원), 가고 싶은 섬 가꾸기(16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78억 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80억 원),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25억 원), 지방어항 건설(62억 원), 노화 구석지구 배수개선 사업(26억 원), 수산분야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101억 원), 수산물 산자가공시설(24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22억 원) 등이다.

한편 완도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함평 월야 “취약계층 싱크대 바꿔준다”

지역취약계층 위해 진성퍼니처와 협약



함평군 월야면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싱크대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면은 지난 6월 주방가구 전문업체인 (주)진성퍼니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싱크대 교체 등이 어려운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방 개선하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총 6가구가 싱크대 교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민들의 반응은 연일 뜨겁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전액을 지역 모금액과 진성퍼니처 재능기부로 충당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더욱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싱크대 교체 지원 사업은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박래군 월야면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진도 전복·미역 등, NS홈쇼핑 판매



보배섬 진도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전복, 미역, 울금을 TV 홈쇼핑에서 만날 수 있다.

진도군은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80분 동안 NS홈쇼핑 채널에서 전복과 미역을 판매했다고 25일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청정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홍보 효과 등을 위해 엄선된 특산품을 패키지 등으로 판매하며, 진도산 전복과 미역의 뛰어난 홍보했다.

진도군 특집 방송으로 우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40분 동안 전복이 판매되며, 5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는 미역이 TV를 통해 전국에 판매됐다.

또 12월 2일 오전 6시부터 30분 동안은 진도 울금 과립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제52회 정남진 장흥 전국 남·여 배구대회

장흥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장흥군 실내체육관 및 장흥읍 소재 학교 체육관(7개소)에서 개최한 ‘제52회 정남진 장흥 전국 남·여 배구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 결과 남자클럽부에서는 거창 가즈아 클럽이, 여자클럽부에서는 무안 생체 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다. 장년부에서는 광주 배사

모 클럽이, 시니어부에서는 광주 빛고을 클럽이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직장·사회단체부에서는 장흥 천관농협이 우승했다. 이어 장흥군청이 2위, 장흥초등학교·장흥교육지원청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무안 생체 클럽은 우승을 해서 기쁘다고 전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